

양키스 헤르만 ‘페펙트게임’ 대기록 작성



▲ 퍼펙트게임 후 두 손을 들고 기뻐하는 도밍고 헤르만
사진=news7g.com

메이저리그에서 11년 만에 퍼펙트게임이 나왔다.

뉴욕 양키스 투수 도밍고 헤르만은 지난 28일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의 오클랜드 콜리세움에서 열린 2023 메이저리그 오클랜드 어슬레틱스와의 원정경기에 선발 등판해 9이닝 9탈삼진 무실점으로 메이저리그 역대 24번째 퍼펙트게임 대기록을 달성했다.

헤르만은 “너무 신나는 하루다. 내 경력에서 영원히 기억될 순간이다. 내가 역사의 일부가 됐다.”고 퍼펙트 게임 달성을 소감을 전했다.

도미니카공화국 출신의 헤르만은 2017년 양키스 유니폼을 입고 메이저리그에 데뷔해 2019년 18승을 거두며 팬들의 관심을 모았다. 하지만 2020년에는 여자친구를 폭행해 81경기 출장정지 징계를 받았고, 지난 5월에는 토론토 블루제이스전에서 이를 질을 사용해 10경기 출장정지 징계를 받기도 했다. 성적 또한 2021년 4승, 2022년 2승에 이어 올해 4승 5패 평균자책점 5.10으로 크게 두각을 드러내지 못하던 상황이었다.

양키스의 애런 분 감독은 “헤르만은 이를 전 삼촌이 돌아가셔서 심적으로 힘든 한 주를 보냈다. 지난 며칠 동안 어떤 일을 겪었는지 알기에 오늘 그가 너무 자랑스러웠다. 헤르만이 그라운드에서 걸작 한 편을 완성했다.” 라며 헤르만의 퍼펙트 투구에 남다른 의미를 부여했다.

고진영, 여자골프 ‘역대 최장’ 세계1위

고진영(28)이 LPGA 최장 기간 세계 랭킹 1위 기록을 새로 썼다.

지난 27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고진영은 전날 발표된 여자 골프 세계 랭킹에서 8.31 점으로 1위 자리를 지켰다. 이로써 고진영은 159주 동안 세계 랭킹 1위를 유지했다. 여자 골프 세계 랭킹은 2006년부터 집계됐으며 매주 발표된다.



▲ LPGA 최장기간 세계 랭킹 1위 기록을 세운 고진영
사진=LPGA.com

앞서 최장 기간 랭킹 1위 기록을 가지고 있던 선수는 ‘LPGA 전설’로 불리던 오초아였다. 오초아는 2007년 세계 1위에 올라 158주 연속 정상을 지킨다 2010년 은퇴했다.

고진영은 “경기에서 잘하지 못해 오초아 선수의 기

록을 깰 것이라 생각하지 못했다.”며 “새로운 기록을 세우게 돼 영광스럽다. 응원과 기도를 보내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날 LPGA는 오초아의 죽 하 영상을 공개했다. 오초아는 고진영에게 “가장 먼저 축하를 전하고 싶었다.”며 “그 방향으로 계속 가라.”고 격려했다.

고진영의 뒤를 이어 넬리 코르다(미국), 리디아 고(뉴질랜드), 밀리아 부(미국)가 각각 2~4위에 이름을 올렸다. 고진영 외 한국 선수로는 김효주 8위, 전인지 16위에 자리했다.

한편 역대 세계 1위에 올랐던 한국 선수는 고진영과 박인비, 신지애, 박성현, 유소연 등 모두 5명이다.

미국, 농구 월드컵 파워 랭킹 1위

미국이 농구 월드컵 파워 랭킹 1위에 올랐다.

지난 28일 ‘점프볼’(jump-ball.co.kr)에 따르면 국제농구연맹(FIBA)은 전날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오늘 8월 일본, 필리핀, 인도네시아에서 공동 개최되는 ‘2023 FIBA 농구 월드컵’에 출전하는 32개국의 전력을 평가한 파워 랭킹을 공개했다.



▲ NBA 경기 중 덩크슛을 성공시키고 있는
멤피스의 자伦 잭슨 주니어. 사진=namuwiki

1위는 미국이 차지했다.

2010년, 2014년에 이어

2019년 월드컵에서 3회 연속 우승에 도전했지만 8강전에서 프랑스에 불의의 일격을 당하며 탈락했던 미국은 이번 대회에서 자존심 회복을 노리고 있다. 아직 공식적인 발표는 없었지만 자伦 잭슨 주니어(멤피스), 앤서니 에드워즈(미네소타), 타이리스 할리버튼(인디

애나), 파울로 반케로(올랜도) 등이 참가를 확정지었다. 전원 NBA리거로 구성된 미국은 강력한 우승후보로 꼽히고 있다.

FIBA는 미국에 대해 “지난 월드컵에서 시상대에 오르지 못했음에도 강력한 파워 랭킹 1위다. 미국은 2020 도쿄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차지했다. 2019년 월드컵을 기억하면서 6번째 우승을 노리고 있다.”고 밝혔다.

2위에는 디펜딩 챔피언이자 현재 FIBA 랭킹 1위 스페인이

올랐다.

3위는 프랑스가 랭크되었다. 프랑스는 2019년 월드컵 3위, 2020년 도쿄 올림픽 은메달, 2022 FIBA 유로バスケット 준우승을 기록하는 등 확실한 농구 강국으로 자리 잡았다.

**사장님,
힘내세요!**

대박나게 도와 드릴께요.

대박사인

배너, 메뉴보드, 전단, 명함 등
각종 실내외 사인부터
광고, 디자인까지-

Tel.(323)641-7907

1890 W Washington Blvd
Los Angeles, CA 90007